



일정

- Leave to chaing rai
- 2th Asia-pacific water forum
- Mid-term report for Thai staff
- Arrived to Bankard village

관계 맺기

태국 알기

- Central Plaza Iron man 3
- Mae Fah Luang university
- Travel to Chaing Rai & Mai

5월의 총평

2nd ASIA PACIFIC WATER SUMMIT

일정



2nd ASIA-PACIFIC
WATER SUMMIT





치앙라이를 떠나다.

5월 10일, 4월 한 달 동안 정들었던 치앙라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함께 했던 스테프들 모두가 같이 배웅 해주셨습니다. 한 달전, 산캄펑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때론 언니, 오빠 같이 챙겨주셨던 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4월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억을 안겨주신 치앙라이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2nd ASIA-PACIFIC
WATER SUMMIT
14 - 20 MAY
CHIANG MAI
THAILAND 2013

2nd Asia-Pacific-Water Forum

ASEAN+3 국가들이 모여
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하는 회의

YMCA가 주관하는 Youth water Camp에
Uni Y 친구들, 관련 전공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라온아띠도 STAFF로 참여.

Camp에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물과 관련된 주제를 배우고 토론하는 캠프.

치앙라이에서의 한 달을 마무리 하고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앙마이에서 열린 2nd Asia-pacific water forum에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 동안 물에 대한 강의도 듣고
직접 밖에 나가서 수질 체크 등의 야외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물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Water Forum에 참가하다

치앙라이에서 한 달을 바쁘게 보내고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채,
Water forum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ater forum에 대한 정보를 많이
조사하지 못하고 워터 포럼에 참가되었는데,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모여 큰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와 함께
회의, 미팅등을 진행하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Water forum 중에서
Youth Water camp의 Staff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Uni Y,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50명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인솔하고, 캠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체험 물의 현장

회의장이 아닌 직접 밖으로 나가 물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질 체크를 하기 위해 여러 장소(매남 땡, 매카 수로, 폭포 등)를 방문하였습니다. 책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물을 어떻게 하면 덜 오염시킬 수 있을까?
 쓰나미, 가뭄,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재해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준비하여
 워터 포럼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지 STAFF과의 중간 발표

워터 포럼이 끝나고 태국 산캄펑 식구들에게 2달간 살아온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일정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캄펑 식구들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즐거워 해주셔서 보고서를 준비했던 한 달간의 힘들었던 노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HEALING TIME!!

한국에 다녀오신 피프레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주신 불고기와 김치 만찬!
보고서 준비동안 힘들었던 피로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던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



2달간의 마을 생활을 시작, Phrae, BanKard 마을에 오다.





Welcome To BanKard

5월 21일, 2달간의 마을생활을 하기위해 정들었던 산캄팽을 떠나
프레의 반깃마을로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환대에 부담도 되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마을 분들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
우리의 공연과 학생들의 공연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함께 생활할 새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데이와 엄의 가족



꿈과 눈의 가족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남과 밤의 가족



벤티와 눈의 가족





학교 선생님이 되다

앞으로 두 달동안 Bankardprachanukroh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조회 및 점심 조회 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 수업시간에 보조 선생님이로 들어가 학생들의 영어 대화를 돕기도 합니다.

지금은 보조 교사로 현지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도 생길 예정입니다.



태국 알기



Central Plaza IRON MAN 3

치앙라이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태국에 있는 영화관을 가보았습니다.

한국과 별 다르게 없는 영화 관람이었지만, 우리나라 70-80년대와 비슷하게 영화 시작 전에 왕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일어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신기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또 태국어로 더빙된 아이언맨 3를 봐서 당황도 하고, 재미도 있었던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Mae Fah Luang University

람빵에서 만났던 친구 이우가 다니는 메팔루앙 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메조와는 다르게 이우의 안내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교복, 학교 동아리, 학생회 등 진짜 학생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치앙라이 탐험

매일 반복된 보고서 준비와 이것 저것으로 바빴던 우리에게 우리가 주는 힐링 타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이곳 저곳을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치앙라이라는 도시에 대해 더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타논 콘 드언 무어라이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산캄팽에서 살고 있었지만, 한번도 치앙마이를 제대로 둘러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처음으로 우리끼리 치앙마이를 탐험해보았습니다. 비록 산캄팽, 치앙라이, 치앙마이 워킹스트리트 모두 비슷했지만, 치앙마이의 밤거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관계 맺기



P'pann



P'pang

P'tong

P'yam

Aot

View

우리가 만난

사람들

view와 친구들.

워터포럼 기간인 6일동안 저희 라온아띠와 함께 했던 view와 친구들. Uni-Y로 활동중인 이 친구들도 워터포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워크캠프에서 짧게 인사나눴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설레이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금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태국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신 P'pann. 역시나 많은 라온아띠들을 알고 계시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던 P'pann. 그러나 얼마전 운영하시던 커피숍을 닫으셔서 저희도 무척 슬펐습니다, 다만 그리고 우리의 추억이 있던, 예쁜 카페를 다시 볼 수 없다니. 지금은 여행을 떠나 계시는 다정한 삼촌 같은 피판. 저희 라온아띠에게 많은 격려를 주시는 분입니다.



5월의 총평



Nam

벌써 태국에 온 지도 어느덧 3달이 지나갑니다. 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좋은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달은 새로운 환경인 Phrae에서 호스트 가족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지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을 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Take care 하면서 화이팅!!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달이 지나갔습니다.
안 올 것만 같았던 5월이 이제는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에 새로움과 낯설음. 이제는 어느정도 새로운 가족에 익숙해져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와 선생님의 역할로 지내다보니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좋은 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을에서의 2달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지낼겁니다.



Kung



Doi

태국에서 보낸 이번 5월은 참 다사다난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정들었던 치앙라이를 떠나, Water forum 그리고 앞으로의 두달을 보낼 Phrae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떠나보내는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두달을 이곳에서 아이들의 선생님이로써, 때론 친구로써 지내게 될 생활이 무척이나 설레며, 태국 문화 속으로 한층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제 자신을 비워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담아갈 수있는 두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쑤쑤!!!

치앙라이에서 산캄펑으로 돌아와 워터포럼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태국에서 이 곳 저 곳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지만 아직 그 사람들과 헤어지는게 익숙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더 열어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5월말 프레에서 홈스테이가 시작되며 이 곳 가족들과 함께 태국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곳 사람들과 2달뒤 헤어질거라 생각을 하면 슬프고 아쉽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 하루하루 마음을 열어주는게 느껴져 고맙고 즐겁습니다. 프레에서의 생활동안 팀원모두 아프지 않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보냈으면 좋겠습니다!



Pia